

# 朝鮮朝 書院造景의 考察 (조선조 서원조경의 고찰) 〈도산서원(陶山書院)〉

정 재 훈(鄭在鎭)

- |             |                    |
|-------------|--------------------|
| 1. 序設       | 5. 陶山書院 境域의 植物과 動物 |
| 2. 陶山書院의 沿革 | 6. 陶山書院 景觀의 機能     |
| 3. 陶山書院의 擇地 | 7. 陶山書院 風致의 美觀     |
| 4. 陶山書院의 配置 | 8. 結語              |

## 1. 서 설(序設)

한국의 조경(造景)은 회유림천식(回遊林泉式) 조경(造景)으로서 산맥과 통하고 지맥을 살려서 산 언덕 맑은 시내가에 터잡아 수석지승(水石之勝)을 이용하였다. 자연(自然)을 위압하고 인공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自然)의 모습 속에 돌입하여 다정하고 소담하며 유연하고 적요한 경지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自然)을 순수히 받아드리고 대담하고 거치장 스러운 당당함이 아니라 친밀하고 소박한 자연미(自然味)를 풍기며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속에 묵묵히 순응하는 천리를 좇아 수종(樹種)을 가꾸고 괴석(怪石)을 놓고 짐승을 기르며 정사(亭榭)를 짓고 언덕을 만들며 못을 파고 시내를 끌어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사계(四季)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낙엽수(落葉樹)가 정원수로 심어지고 선풍(禪風)에 따라 들이 승상되어 정원의 곳곳에는 괴석(怪石)이 놓여졌다. 화사스러운 화초(花草)는 화포(花圃)에 심어졌지만 한국의 격조높은 정원에 화초의 기능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한국 조경(造景) 유적(遺蹟)에서 잘 볼 수 없다. 조선조(朝鮮朝) 경원(京苑)의 대표적 인원지(苑地)인 비원(秘苑)이나 경복궁(景福宮)에는 물론이고 안압지 포석정지나 서원(書院) 및 많은 누각과 고산의 은거처 였던 보길도장원지등(甫吉島莊苑地等)에는 화포(花圃)가 없다.

이 자연(自然)의 절경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인간(人間)의 회유적(戲遊的) 공간을 만들면서 여기에 지어지는 사정(射亭)의 건축(建築) 의장이 또한 자연에 영합되게 하였고 다리하나 놓고 담하나 쌓는데 세심하게 배려가 이루어졌다. 저 아름다운 선암사나 홍국사 등지의 자연석(自然石) 홍교와 교각과 누정의 난가과 문살모양이며 지붕을 처리함에 있어 기와나 떠나 나무껍질 등으로 자연(自然)에 동화(同和)시키는 구조물(構造物)을 설치 하였으며 화전(畵塼)을 구워 담장을 쌓고 화려할데는 화려하게 색채를 살려 조성(造成)하였으며 자연석(自然石)을 쌓고 배치하는데 있어서 실로 오랜 풍우와 일월(日月)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自然)의 돌을 썼던 것이다. 정원에

들어가는 돌이 파석이 되어서는 않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의 식종(植種)을 살펴보면 산수유, 옥매화, 단풍, 모과나무, 유자, 비자(榧子), 치자(梔子), 두견화(杜鵑花), 벽오동(碧梧桐), 왜적촉(倭擲蝟), 함박꽃, 살구, 새양나무, 백철죽, 석죽화(石竹花), 작약(芍藥), 흰초(萱草), 근화(槿花), 자미(紫薇), 해당(海棠), 송(松), 하화(荷花), 이화(李花), 목필화(木筆花), 장미(薔薇), 국화(菊花), 사계화(四季花), 난(蘭), 천엽류화(千葉榴花), 계관화(鷄冠花), 황촉화(黃燭花), 금전화(金錢花), 지당(地棠), 서상화(瑞祥花), 동백(冬栢), 협죽도(夾竹挑), 백엽도(百葉挑), 석창도(石菖挑), 약초(藥草), 등이며 채포(菜圃)에는 과(瓜), 청(菁), 총(葱), 규(葵), 호(瓠), 가(茄), 등이 있었다. 이러한 한국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더듬어 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百濟) 진사왕(辰斯王) 7년(春) 정월조(正月條) (391)에 「중수궁실(重修宮室) 천지조산(穿池造山) 이양기리이취(以養奇離異卉)」이라 하였는데 이는 「궁실을 수리하고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기이한 새와 초목을 길렀다.」는 것인바 이때는 백제(百濟)의 한성(漢城) 시대로서 그 유적(遺蹟)을 찾을길 없다.

또 동서(同書) 백제(百濟) 동성왕(東城王) 22년(500) 봄에 「기림류(基臨流)각어궁동(關於宮東) 고오장(高五丈) 우천지양기리(又穿池養奇離)」이라 하여 이는 궁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길이고 또 연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길렀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공주시대(公州時代)로서 아직 유지(遺址)를 발견(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백제(百濟)무왕(武王) 35년(634) 춘(春) 2월 「왕흥사성(王興寺成) 기사림수(其寺臨水) 채식장려(彩飾壯麗) 왕매승주입사행향(王每乘舟入寺行香)」이라 하였는데 이는 「왕흥사를 이룩하였는데 그절은 물에 임하였고 채색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몄으며 왕은 늘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는 것인바 이는 백제 사차시대(泗泚時代)로서 현 부소산성 서편의 부여군 규암면(龜岩面) 신구리(新九里) 왕은리(王隱里) 사지(寺址)가 있으며, 1934년 왕흥(王興)이라 새긴 기와가 이곳에서 발견되었고 동서(東西)로 일선(一線)의 석축(石築)과 초석(礎石) 7개(個)만이 남아 있으며 문석(門石)과 팔각주(八角柱)등의 귀중(貴重)한 석물(石物)이 논산군(論山郡) 성동면(城東面) 반곤리(半昆里) 개인집에 전전타가 운반되어 왔다. 아직도 이 사지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발굴조사시에 조경(造景)의 유적조사(遺蹟調査)도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무왕(武王) 35년 3월 「천지어궁남 인수20여리 사안식이양류 수중축도서 의방장선산(穿池於宮南 引水20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이라 하였는데 이는 「궁성(宮城)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어 들이고 사방(四方)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속에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모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현재 사적지(史蹟地)로 지정(指定)된 부여읍 궁남지(宮南池)를 말하는 것으로 늪과 수전이던 땅을 1966년에 못을 파고 못가운데 섬을 만들어 전각(殿閣)을 짓고 목교를 놓았다. 그리고 뚝에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모방한 가산을 만들고 수양버들을 심어 1만여평(萬餘坪)의 백제(百濟) 유일의 원지(苑池)가 완전히 못하나 복원(復元)되어 있다.

그리고 동왕(同王) 37년(636) 「왕솔좌우신료 유연어사비하북포 양안기암괴석착립 간이기화이초 여화도(王率左右臣僚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 如畫圖)」이라 하였는데 이는 「왕은 좌우에 신하를 거느리고 사비하의 북포에서 연회를 베풀고 놀았다. 이 포구(浦口)의 양쪽 언덕에 기암과 괴석을 세우고 그 사이에 기화(奇花) 이초(異草)를 심었는데 마치 그림과도 같았다」는 것인바 이 북포(北浦)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지금 대왕포(大王浦)라 하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부소산성 북쪽 배랑밑 백마강 연안으로서 낙화암(落花岩)에서 고란사 위쪽 조용대(鈞龍臺) 아래 부근이다. 지금도 이곳은 부여의 가장 아름다운 경승지다. 이같이 백제는 삼국중(三國中) 가장 조경(造景)에 대(對)한 안목과 기술이 일찍이 발달되어 일본서기(日本書記) 추고천황(推古天皇) 20년조(年條)(612)에 나오는 백제인(百濟人) 노자공(路子工)이 궁실(宮室)의 남쪽

뜨락에 수미산(須彌山)을 꾸미고 오교(吳橋)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백제(百濟)는 일본(日本) 정원의 창시자가 된 것이다.

신라(新羅)는 물론 금성(金城)을 축조할 때나 월성(月城)을 축성(築城)할 때 이미 조경(造景)의 배려가 있었을 것이고 또 불국사(佛國寺)나 감은사(感恩寺) 등의 사찰조경(寺刹造景)은 현재 유구(遺構)로서 당대의 높고 미려한 조경처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의 기록중 문무왕(文武王) 14년 2월 「궁내천지조산 종화초 양진리기수(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離奇獸)」이라 간략하게 되어 있는바 이보다 좀더 자세한 것은 동사강목(東史綱目) 문무왕(文武王) 14년조(年條)에 「왕어궁내천지 적석위산상무산십이봉 종화훼양진리 기서즉림해전지금칭안압지 재경주천주사북(王於宮內穿池 積石爲山象巫山十二峯 種花卉養珍離 其西卽臨海殿池今稱雁鴨池 在慶州天柱寺北)」이라 한 것이다.

이는 「왕이 궁내에 연못을 파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무산 12봉을 모방하고 진귀한 새와 온갖 화초를 길렀다. 그 서쪽이 임해전이며 연못을 지금 안압지라 부르는데 경주 천주사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곳은 지금 사적지(史蹟地)로 지정(指定)되어 있는 월성동(月城東)쪽 임해전지(臨海殿池)를 말하는 것으로 연못의 형태는 심자(心字)의 굴곡을 묘하게 응용하여 전체 연못이 한 안중에 들어나지 않고 유현한 맛을 주고 있다. 지금도 연못 주위에 무산 십이봉(十二峯)의 작은 동산이 남아 있는데 이 무산 십이봉(十二峯)이란 고문진보(古文眞寶) 전집(前集) 권칠(卷七)의 이태백(李太白)의 관원단구좌무산병풍시(觀元丹丘坐巫山屏風詩)의 주석의 기록에 의하면 「무산협 재협주 수미백옥십리 송옥 고당부 초양왕어운몽 몽부인 월첩 재무산지양고구지조 조위행운 모위행우 조조모모 양대지하(巫山峽 在峽州 首尾百六十里 宋玉 高唐賦 楚襄王於雲夢 夢婦人 曰妾在巫山之陽高丘之阻 朝爲行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기주무산유십이봉 망하 취병 조운 송만 집선 취학 정단 상승 초운 비봉 등용 성천 신녀묘거기하(夔州巫山有十二峯 望霞 翠屏 朝雲 松巒 集仙 聚鶴 淨壇 上昇 超雲 飛鳳 登龍 聖泉 神女廟居其下)」이라 하였는데 이는 「무산협은 협주에 있는데 길이는 백육십리(百六十里)로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초나라 양왕이 운몽에 노닐적에 꿈에 부인이 말하기를 무산남쪽 고구지조(高丘之阻)에 사는데 아침엔 구름이 되고 석양에는 비가 되어 아침 저녁마다 양대(陽臺)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주 무산에 십이(十二)봉이 있는데 봉이름은 망하 취병 조운 송만 집선 취학 정단 상승 초운 비봉 등용 성천이고 신여묘가 그 아래 있다」라 한바 이 무산 십이(十二)봉은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 기주에 있는 기원전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고사 기록으로 선녀(仙女)가 사는 선산(仙山)을 말한다. 그리고 임해전지에는 지금도 정교한 건물 대석 및 낙수홈들이 남아 있다.

다음은 포석정지(鮑石亭址)로서 이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베푸는 장소로서 신라인의 풍류를 상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의 기록은 서성(書聖)이란 칭호를 받은 중국진대(中國晉代)의 서도가(書道家) 왕의지(王羲之)(321~379)의 난형기(蘭亭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높은 산 맑은 계곡의 우거진 숲과 죽림(竹林) 사이에 맑은 물을 끌어들여 구곡(九曲)의 흐름을 만들어 그물위에 술잔을 띄워 그 술잔이 아홉고비를 들때까지 일수(一首)의 시(詩)를 짓고 읊는 놀이를 하는데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영조법식(營造法式) 제삼권(第三卷) 석작제도(石作制度) 유배거조(流盃渠條)에 보면 유배거(流盃渠)를 만들 경우의 제도(制度)는 방(方) 일장오척(一丈五尺)으로 한다(방(方) 삼척(三尺)의 둘 이십오개(二十五個)를 사용하여 만든다). 그 둘의 두께는 일척이촌(一尺二寸)이라 하고 그의 넓이는 일척(一尺) 깊이는 구촌(九寸)의 거도(渠道)를 완착(剏鑿)한다(그 거도(渠道)는 반굴(盤屈)시키고 혹(或)은 풍자(風字)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자(國字)로 만든다. 만일 좌판(座版)을 사용하여 첩조(疊造)로 하는

경우에는 즉 중심(中心)에 일패석의 간반(看盤)을 만든다. 그 길이는 사척(四尺) 넓이는 삼척오촌(三尺五寸)으로 한다. 간반석외(看盤石外)의 거도석(渠道石)은 모두 길이 삼척(三尺) 넓이 이척(二尺) 두께 일척(一尺)으로 하고 저판석(底版石)도 길이와 넓이를 거도석(渠道石)과 같게 하고 두께는 육촌(六寸)으로 한다. 그외(外)는 전부(全部) 완착(剗鑿)의 경우와 같게 한다. 입수(入水)와 출수(出水)의 항자석(項子石)의 이석(二石)은 각각 길이 삼척(三尺) 넓이 이척(二尺) 깊이 일척이촌(一尺二寸).(완착(剗鑿)의 경우는 신내(身內)와 같게 하고 첩조(疊造)로 하는 경우는 즉(卽) 깊이를 일척(一尺)으로 하고 그밑에 또 깊이 육촌(六寸)의 저판석(底版石)을 사용(使用)한다) 입수(入水)와 출수(出水)의 두자석이매(斗子石二枚)는 각각 방이척오촌(方二尺五寸) 깊이 일척이촌(一尺二寸)으로 하여 그중 방일척(方一尺) 팔촌(八寸) 깊이 일척(一尺)의 못을 판다. (첩조(疊造)도 같게 한다)라고 하여 중국(中國)에서 이러한 곡수연(曲水宴)의 장소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1918년 송(宋)의 승복궁지(崇福宮址)에서도 범상정지(泛觴亭址)가 밝혀졌다.

이 포석정지는 주위의 세심한 조사연구가 선행(先行)되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高句麗)의 조경(造景)은 평양(平壤)의 안학궁지(安鶴宮址)나 고분벽화 등에서 추정할 수 있으나 아직 조사 연구된 바가 없다.

고려(高麗)의 조경(造景)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예종(睿宗) 8年(1113年) 이월조(二月條)에 「치화원 이간궁남서 시 환사 경이사치미왕 기당사 준원장 팔민가화초 이재기중이위부족 우구어송상비내탕금폐부자(置花園二千宮南西 時 宦寺 競以奢侈媚王 起堂樹 峻垣墻 括民家花草 移栽其中以爲不足 又購於宋商費內帑金幣不費)」라 하였는데 이는 「화원 들을 왕궁 남서쪽에 설치하였다. 이때 내시들이 다투어 가며 사치한 것으로 왕에게 아첨하려 하여 누대를 짓고 담장을 높이 쌓으며 민가의 화초를 거두어서 그 가운데 옮겨 심었다. 그리고도 부족하여 또 송나라 상인들에게 사들이니 내탕고의 금품을 소비한 것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유적(遺蹟)은 송경(松京)에 있었는데 조사할 수 없다.

또한 의종(毅宗) 6年 4월조(月條)에(1152) 「내시윤언문 취괴석 축가산우수창궁복원 구조정기축 호왈만수이황릉피벽 궁극사치 현탈인목(內侍尹彦文 聚怪石 築假山于壽昌宮北園 構小亭其側 號曰萬壽以黃綾被壁 窮極奢侈 眩奪人目)」이란 기록이 있는바 이는 「내시 윤언문이 괴석을 모아 수창궁 복원에 가산을 쌓고 그곁에 조그마한 정자를 세우고는 만수정이라 이름하고 황색 능건으로 벽을 덮어 극도의 사치가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하였고 「어사잡단김알등 입목청전 주람 선구보양성정 상어원화혜 사연간충허각 초 왕어대내동북우 기일각 편왈충허 금벽선명 화식절어 우어내합별실 거선약 의육광치증병 편왈선구보 우구정기축 취괴석명화 편왈양성(御史雜端金謁等 入穆清殿 周覽善救寶養性亭 賞御苑花卉 賜宴于冲虛閣 初 王於大內東北隅 起一閣 扁曰冲虛 金碧鮮明 華飾絕麗 又於內閣別室 居善藥 意欲廣治衆病 扁曰善救寶 又構亭其側 聚怪石名花 扁曰養性)」이란 것은

「어사 잡단 김알등을 불러 목청정에 들어가서 선구보와 양성정을 두루 관람시키고 어원의 화혜를 완상한 뒤에 충허각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일찍이 왕이 대궐안 동북쪽에 한누각을 세우고는 「충허각」이라 써 붙였는데 단청이 선명하고 화려한 장식이 극히 아름다웠다. 또 내각 별실에 좋은 약을 쌓아두고 널리 많은 병환자를 치료하려고 뜻하여 「선구보」라 이름하였고 또 그 곁에 정자를 세우고는 괴석과 명화를 모아 놓고 「양성정」이라 이름하였던 것이다」라 한 기록이 보이며

의종(毅宗) 11年 4월조(月條)에(1157)

「하사월 켈동리궁성 궁왈수덕 전왈천녕 우이시중왕충제 위안창궁 참정김정순제 위정화궁 평장

사경의제 위연창궁 추밀부사김거공제 위서풍궁우혜민가오십여구 작대평정 명태자서액 방식명화 이과 기려진완지물 포열좌우 정남작지 작관란정 기복 구양이정 개이청자 남구양화정 개이직우마 왕석 축관회 미성이대 취괴석 작선산 인원수위비천 궁극치려(夏四月 關東離宮成 宮曰壽德 殿曰天寧 又以侍中王冲弟 爲安昌宮 參政金正純第 爲靜和宮 平章事庚溺第 爲連昌宮 樞密副使金巨公第 爲瑞豐宮又毀民家五十餘區 作大平亭 命太子書額 旁植名花異果 奇麗珍玩之物 布列左右 亭南鑿池 作觀瀾亭 其北 構養貽亭 盖以青瓷 南構養和亭 盖以稷又磨王石 築觀喜 美成二臺 聚石 作仙山 引遠水爲飛泉 窮極侈麗)」 한 것은 「여름 4월에 대궐 동쪽의 별궁이 준공되었다. 궁은 수덕궁이라 이름하고 전은 천녕전이라 하였다. 또 시중 왕충의 집을 안창궁으로 삼고 첨정 김정순의 집을 정화궁으로 삼고 평장사 유필의 집을 연창궁으로 삼고 추밀사 김거공의 집을 서풍궁으로 삼았다. 또 민가 50여호를 헐고 대평정을 짓고 태자에게 명하여 현판을 써서 달고 주위에는 이름있는 꽃과 이상한 과실나무를 심고 진기하고 화려한 물건을 좌우에 나열하였다. 정자 남쪽에는 못을 파고 관란정을 지었으며 그 북쪽에는 양이정을 세워 청자로 덮고 남쪽에는 양화정을 짓고서 종죽으로 덮었다. 또 옥들을 깎아서 환희대 미성대를 쌓았다. 미석을 모아 선산을 만들고 먼물을 끌어들이 폭포를 만드는 등 사치를 극하였다.」

이는 상당한 궁궐을 넓히고 고려 조정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로서 여기서 청자와를 쓴 양이정의 기록이 주목되고 이 청자와는 국립박물관 미술과의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康津郡 大口面 沙堂里)에서 1964년 숫막새와 암막새가 발굴되어 청자와의 실재(實在)를 확증(確證)하였다. 그리고 의종 21年 3월에 「청녕재남쪽 구정자각 편알중미정 정대남간 축토석저수 안상작모정 부안로워 완여강 호지상 범주기중 영소동 도가어창 이자유관(淸寧齋南麓 構丁字閣 扁曰衆美亭 亭大南澗 築土石貯水 岸上作茅亭 鳧鴈蘆葦 宛如江湖之狀 泛舟其中 令小僮 棹歌漁唱 以恣遊觀)」 이란 것은 「청녕재 남쪽 기슭에 정자를 세우고 중미정이란 현판을 달았다. 정자남쪽 시내(澗)에 흙과 돌을 쌓아 물을 막아서 저수하고 언덕위에 초가 정자를 짓고 오리가 놀고 갈대가 우거진 것이 완연히 강호의 경치와 같았는데 그 가운데 배를 띄우고 소동으로 하여금 뱃노래와 어부노래를 부르게 하여 놀이를 마음껏 즐기었다」 라는 것이다.

또한 의종 21年 4월조(月條)에 「이하청절 행만춘정 연재추시신어연홍전 대략서관현방 비채륙준화 헌선도 포구락등 성기지희 우범주정남포 연류상하 상여창화 지야내파 정재판적내 유전알 연홍남유간반회 좌우식송죽화초 우유모정초투 범칠유액자사알 영덕정 수락당 선벽재 옥간정 교알금화 문왈수덕 기어선 식이금수 위류런지락 범삼년이성 개박회준 유장 백선연 종두이위지야(以河淸節 幸萬春亭 宴宰樞侍臣於延興殿 大樂署管絃坊 備綵欄樽花 獻仙桃 拋毬樂等 聲伎之戲 又泛舟亭南浦 沿流上下 相與唱和 至夜乃罷 亭在板積內 有殿曰 延興南有澗般廻 左右植松竹花草 又有茅亭草樓 凡七有額者四曰 靈德亭 壽樂堂 鮮碧齋 玉竿亭 橋曰錦花 門曰水德 其御船 飾以錦繡 爲流連之樂 凡三年而成 皆朴懷俊 劉莊 白善淵 從兜而爲之也)」 이라 한 것은

「하청절이므로 만춘정에 행차하여 재상시신과 더불어 연홍전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대략서와 관현방에서 채봉 준화 헌선도 포구락 등의 놀이를 갖추어 행하고 또 정자 남쪽 못에서 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오르 내리며 서로 부르고 화답하다가 밤에 이르러 비로써 파하였다. 만춘정은 판적요 안에 있는데 연홍전이 있고 남쪽에는 시냇물이 구비쳐 좌우에 송죽과 화초를 심었다. 또 아담한 모정 초루가 무릇 일곱 군데나 있는데 현판이 있는 것이 네 개가 있었으니 영덕정 수락당 선벽재 옥간정이요 다리를 금화교라 하고 문은 수덕문이라 이름하였다. 어선은 비단으로 꾸며 높이 하기 위한 것인데 무릇 3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이니 모두 박회준 유장 백선연이 왕을 추슬러서 한 것이었다」 는 것으로 모두 개성 송도의 유적이라 조사할 수도 없다.

동왕(同王) 유월조(六月條)에 「이어현화사 전시 왕개성동사천 용연사남 유석벽수인 삭립임천

월호암 유수정축 수목옹을 명내시이당주 배연등 구정기축 명연복기화이목 열식사우 이수천불가 주 축제위호 기지백사(移御玄化寺 先是 王開城東沙川 龍淵寺南 有石壁數仞 削立臨川曰虎岩 流水停滯 樹木蓊蔚 命內侍李唐柱 裴衍等 構亭其側 名延福奇花異木 列植四隅 以水淺不可舟 築堤爲湖 其地白沙)」이라 한 것은

6월에 「현화사로 이어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성동의 사천 용연사 남쪽에 두서너 길되는 석벽이 냇가에 깎아 세운 듯이 서 있어 그 이름을 호암이라 하는데 흐르는 물이 여기 와서 물이 피어 있고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는 말을 듣고 내시 이당주 배연 등에게 명하여 그걸에 정자를 짓고 연복정이라 이름하고는 네 귀퉁이에 기이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물이 얇아서 배를 띄울 수 없으므로 제방을 막고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땅이 흰모래였다.」

이곳은 지금도 찾을 수 있을 유적으로서 고려 의종 년간의 많은 연회가 베풀어졌던 이 연복정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朝鮮時代)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한 택지(宅地)를 택(擇)하는 풍습이 고려시대(高麗時代)보다 더 풍미하여 정도전은 한성(漢城)으로의 천도의 주장에 있어서도 이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궁성(宮城)뿐 아니고 기제(墓制)나 주택지까지 이를 신봉하게 되었다.

이 설(說)은 한(漢)나라 때에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혼합되어 체계를 갖추고, 신라시대(新羅時代)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도선(道詵)과 같은 풍수(風水)의 대가(大家)를 낳게 했으나 이때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초기(朝鮮初期)까지는 국도풍수(國都風水)로서 발달(發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송도는 진산(鎭山)인 송악(松岳)을 등지고 있으며 중 무학과 정도전에 의하여 정해진 조선의 국도(國都) 서울은 북악(北岳)을 진산(鎭山)으로 등지고 백호(白虎)인 인왕산과 청룡(靑龍)인 낙산(洛山)을 좌우에 거느리고 안산(案山)인 관악을 바라보며 맑은 청계천이 산 계곡 사이를 아름답게 흘러갔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조경지(造景地)로서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이 있다. 이는 태종(太宗) 6년 4월(1406) 연못앞에 해온정(解溫亭)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조(世祖)때 연지(蓮池)를 파고 열온정(閱溫亭) 신묘정(新茅亭) 등과 원(苑)담을 쌓았으며 연산군에 의하여 화려한 후원을 본격적으로 꾸미고 원성(苑城)을 넓히기도 하였다. 또한 광해조(光海朝)에 소정(小亭)을 만들고 화려한 화유(花園)를 이룩했으며 인조(仁祖)때에 옥류천(玉流川)을 파고 소요정(逍遙亭) 운영정(雲影亭) 청의정(淸漪亭) 취미정(翠微亭) 육면정(六面亭) 취향정(醉香亭) 벽하정(碧荷亭) 취승정(聚勝亭) 관풍각(觀豐閣)을 세우고 숙종(肅宗)때에 대보단(大報壇)을 이룩하였다.

영조조(英祖祖)에는 규장각(奎章閣)(宙合樓)을 세우고 1921년에 선원전(璿源殿)이 건립되었다. 이 61,900여평(餘坪)의 후원(後苑)은 자연(自然)의 산세를 따라 산록(山麓)의 계곡에 지중(池中)을 만들고 야생의 식목(植木)이 울창하며 큰나무와 관목이 원시림을 연상케 하고 계곡과 언덕에 자연스럽게 구비된 오솔길이 트이고 40여 정자가 와즙(瓦葺) 초가(草家) 수피(樹皮)로 지붕을 덮어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유현(幽玄)한 풍치는 조선조(朝鮮朝) 궁궐 정원의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景福宮) 향원정 아미산 경회루를 위시하여 서울 오대궁(五大宮)과 같은 별궁지(別宮地) 및 수원성(城) 방화 수류정과 지방의 경승지 등에 조영(造營)된 조경(造景)의 기록과 유적(遺蹟)은 많이 남아있다.

특히 근년(近年)에 조사(調査)된 완도군 보길도의 윤선도 유적지(遺蹟地)인 부용동(芙蓉洞) 조경유적(造景遺蹟)은 조선시대 장원지의 화려한 조경(造景)수법의 대표가 될만했다.

이상으로 문적(文蹟)과 유적(遺蹟)에서 간략하고 중점적인 우리나라 조경사(造景史)의 일면을 설명하였거니와 이러한 개설을 앞세워 도산서원 조경의 일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연혁(沿革)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서기 1557년 퇴계선생이 도산서당(陶山書堂)과 농운정사(隴雲精舍)를 법련(法蓮)이란 중으로 하여금 짓다가 정일(淨一)이란 중이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여기서 우리나라 주자학의 대성을 보았으며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였던 것이다. 지금 도산서원의 규모는 1574년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 그 제자들이 상덕사(尙德祠), 전교당(典敎堂) 등 건물을 완성하여 건립한 것이다.

그후 1930년에 서광명실(西光明室)의 일부건물을 건립하였고 1940년 퇴계선생(先生)을 모신 사당(祠堂)인 상덕사(尙德祠)와 전교당(典敎堂)이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되고 1963년 다시 상덕사와 전교당이 보물(寶物) 제211호 및 제210호로 재 지정되었다. 1969년 5월에는 도산서원(陶山書院) 전경역이 사적(史蹟) 제170호로 지정(指定)되었고 1970년 대대적인 중수공사(重修工事)를 실시한 바 있다.

## 3.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택지(擇地)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물(建物)을 조영(造營)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터를 잡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 터잡는데 있어 풍수설(風水說)을 이용하였다. 능묘(陵墓) 주택 도성등(都城等)이 신라통일 이후 모두 지리설(地理說)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고려의 서울 송도(松都)가 그랬고 조선(朝鮮)의 서울 한성(漢城)도 또한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지리설(地理說)에 의하여 이룩된 것임을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우리나라 조경(造景)에 있어 이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하고 있다.

조선(朝鮮) 영조(英祖)때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理志)를 써서 택지(擇地)에 대한 복거(卜居)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의 복거(卜居)할 땅의 조건 넷을 들었는데 첫째가 지리(地理)요 둘째가 생리(生利)이고 셋째가 인심(人心)이며 넷째가 산수(山水)라 하였다.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허무맹랑한 미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현대(現代)의 과학적(科學的) 안목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환경과 경관(景觀)을 구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도산서원(陶山書院)을 건립(建立)함에 있어 퇴계선생은 어떠한 안목을 가졌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陶山雜詠 并記에

도산잡영 병기

「靈芝之日支東出而爲陶山惑曰以其山之再成而  
영지지일지동출이위도산혹왈이기산지재성이  
命之曰陶山也惑云山中舊有陶竈故名之以其實  
명지왈도산야혹운산중구유도조고명지이기실  
也爲山不甚高大宅曠而勢絶占方位不偏故其旁  
야위산불심고대택광이세절점방위불편고기방  
之峯巒溪壑皆若拱揖環抱於比山然也山之在左  
지봉만계학개약공음계건개약공연야산지재좌  
曰東翠屏在右曰西翠屏東屏來自清涼至山之東  
왈동취병재우왈서익병동병래자청량지산지동

而列岫縹緲西屏來自靈芝至山之西而聳峯巍峨  
 이열수표묘서병래자영지산지서이용봉의아  
 兩屏相望南行迤邐船旋九里許則東者西西者東  
 양병상망남행이나선선구리허즉동자서서자동  
 而合勢於南野芬蒼之外水在山後曰退溪在山南  
 이합세어남야분창지의수재산후왈퇴계재산남  
 曰洛川溪循山北而入洛川於山之東川自東屏而  
 왈낙천계순산북이입락천어산지동천자동병이  
 西趨至山之趾則演漾泓渟沿泝數里間深可行舟  
 서추지산지지즉연양홍순연소수리간심가행주  
 金沙玉樂磔清瑩紺寒卽謂濯纓潭也西觸于西屏  
 금사옥력청실영감한즉위탁영담야서촉우서병  
 之崖遂並其下南過大野而入于芙蓉峯下峯卽卽  
 지에수병기하남과대야이입우부용봉하봉즉즉  
 西者東而合勢之處也始餘卜居溪上臨溪縛屋數  
 서자동이합세지처야시여복거계상임계전옥수  
 間以爲藏書養拙之所蓋已三遷其也而輒爲風雨所  
 간이위장서양졸지소개기삼천기야이첩위풍우소  
 壞且以溪上偏於□寂而不稱於曠壤乃更謨遷而得  
 괴차이계상편어□적이불칭어광괴내경모천이득  
 地於山之男也爰有小洞前俯江郊幽□僚廓巖麓悄  
 지어산지남야원유소동전부강교유□료곽암록초  
 菑石□甘冽允宜肥遯之所」

천석□감열윤의비소지소」이라 하였는데, 이는 「영지산의 한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이름하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 이 산중턱에 도기굴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따라 도산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므로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고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 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것 같다.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취병이라 한다. 동병은 청량산에서 나와 이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서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 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 우뚝 높이 솟았다. 두병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꾸불 꾸불 기어내려가 3리쯤 내려 가다가 동병은 서쪽으로 달리고 서병은 동쪽으로 달려서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의 아득한 밖에서 합세하였다. 산뒤에 있는 물을 퇴계라 하고 산 남쪽에 있는 물을 낙천이라 한다. 퇴계는 산 북쪽을 돌아 낙천에 들어 산 동쪽으로 흐르고 낙천은 동병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 기슭아래에 이르러 넓어지고 깊어졌다.

여기서 몇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이 깊어 배가 다닐만 한데 금 같은 모래와 옥 같은 조약들이 맑게 빛나며 검푸르고 차디차다. 여기가 이른바 탁영담이다. 서쪽으로 서병의 벼랑을 지나서 그 아래의 물까지 합하고 남쪽으로 큰 들을 지나 부용봉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봉이 바로 서병이 동병으로 와서 합세한 곳이다. 처음은 내가 퇴계 위에 자리잡고 시내 옆에 두어간 집을 엮어짓고 책을 간직하고 응축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다니 벌써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 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골이 있는데 앞으로 강과 들이 내려다 보이고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이였으며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여 돌 우물은 물맛이 달고 차서 이른바 비둔할 곳으로 적당하였다.」

(비둔(肥遯) = 주역에 있는 말인데 너그럽고 한가하게 자득(自得)하여 숨어산다는 말임)라고 퇴계선생은 이렇게 도산 산수(山水)의 모든 점을 조사하여 터를 잡았던 것이다.

#### 4.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처음에 민가(民家)의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퇴계선생(先生) 당대에는 도산서당(陶山書堂)과 농운정사(隴雲精舍)만의 건물(建物)이 있었다. 도산서당(陶山書堂)은 3칸(건평 28㎡) 맞배 홑처마 집으로 소박하고 간결하며 다듬은 석재를 쓴 것이 없다. 농운정사(隴雲精舍)는 공자(工字)형의 집으로 8칸(건평 46㎡) 홑처마 집이다. 이런 집들은 자연석 주초와 막돌 담장 및 백골집으로 담백한 선비의 은거처였던 것이다.



도산서원 배치 및 조경도



경관 배치  
도

도산잡영(陶山雜詠)에 보면 「당지동편착소방당종련기증알정우당우기동위몽천천상산각착령여헌 대평축지위단이식기상매죽송국알절우사(堂之東偏鑿小方塘種蓮其中曰淨友塘又其東爲蒙泉泉上山脚鑿令與軒對平築之爲壇而植其上梅竹松菊曰節友社)」라 하였다. 이는 「당사의 동쪽 구석에 조그마한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塘)」이라 하고 또 그 동쪽에 몽천이란 샘을 만들고 샘위의 산 기슭을 파서 추녀와 맞대고 평평하게 쌓아 단을 만들고는 그위에 매화, 대, 소나무, 국화를 심어 절우사(節友社)라 불렀다.」 이는 도산서당 건물 동쪽 뜨락에 정우당의 연지(蓮池)가 남아 있고 그 동쪽은 작은 시내인바 시냇가에 몽천의 샘을 만들고 지금은 절우사(節友社)의 터가 없어졌는데 산, 또랑, 물에 파여서 절토가 되어 유실된 것 같다. 그리고 도산서당 입구의 산문(山門)같은 곳에 곡구암(谷口岩)이란 바위가 정문처럼 앉아 있고 이 곡구암 동쪽 15m 산중턱에 천연대란 바위가 절벽위에 평평이 있는데 작은 소리가 나 있다.

서쪽에는 개울 하나를 뛰어 건너서 소로를 따라 30m쯤 오르면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란 평탄한 바위가 있다. 그리고 퇴계선생(先生)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산과 물과 바위에 각각 이름을 붙여 자연(自然)을 자기화 하였던 것이다.

서기 1574년 퇴계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 월천 조목이 중심이 되어 서원(書院)의 경영이 시작되어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북쪽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현재 퇴계선생을 모신 상덕사(尙德祠)(건평 36m<sup>2</sup>)가 가장 북쪽에 지어지고 유생들이 공부하던 전교당(典敎堂)(50m<sup>2</sup>)이 상덕사 앞에 배치되어 있고 동재 서재의 격인 한존재(閑存齋)와 박약재(博約齋)(각 25m<sup>2</sup>)가 양쪽으로 놓여졌고 동서광명실(東西光明室)(각 12m<sup>2</sup>) 양 건물이 남쪽으로 막아 앉았다. 그 사이 중문이 있고 중문 남쪽 30여m 앞에 정문인 진도문(進道門)이 있다. 이외 사당에 필요한 전사청 제기고와 고직이집 판고 등이 전교당을 중심으로 담밖 동서로 있고 농운정사 북쪽에도 고직이 집이 하나 더 있다.

1970년에 유물전시관 하나를 농운정사 서편에 새로 지었다. 서원 앞쪽 서편에 역락서재(亦樂書齋)는 서원 담장 밖에 있으며 서원 조영시의 건물은 아니다.

그리고 낙천(洛川)의 건너 섬에 시사단(試士壇)(8m<sup>2</sup>)이란 비각(碑閣)이 송림(松林) 속에 서 있다. 모두 독립된 건물 17개동(個棟)과 토담들이 작은 규모로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다.

## 5. 도산서원(陶山書院) 경역(境域)의 식물(植物)과 동물(動物)

경관의 구성에 있어 시각적(視覺的)인 것과 청각적인 것 그리고 미각적(味覺的)인 것들이 사람에게 화합(和合)하여 동적(動的) 정적인 감회를 주는 것이다.

식물(植物)의 종류를 보면 도산잡영에 나오는 연(蓮), 송(松), 죽(竹), 매(梅), 국(菊)과 약초 및 야생(野生)의 계절 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죽(竹)에 대하여는 설월죽(雪月竹), 풍죽(風竹), 노죽(露竹), 우죽(雨竹), 추순(抽筍), 치죽(穉竹), 노죽(老竹), 고죽(枯竹), 절죽(折竹), 고죽(孤竹) 등(等)으로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시(詩)로 읊었다.

그리고 조성신(趙星臣)의 도산별곡(陶山別曲)에 나오는 벽도(碧桃), 홍화(紅花), 단풍(丹楓)이 있었으며 현재 경역의 기록에 나오는 종류 외에 산수유, 느티, 은행, 살구, 작약, 모과, 진달래, 개나리, 난초등이 있었다. 10만여평의 경역이 대부분 울창한 송림이지만 5천여평의 서원 담장 주위는 매화, 살구, 단풍, 벽도(碧桃), 산수유, 느티, 은행 등으로 둘러 있다. 퇴계선생은 가장 매화(梅花)를 좋아하여 매선(梅仙)이라 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동물(動物)은 도산잡영(陶山雜詠)에 백조와 산새, 물고기들이 나온다. 지금도 이 지방은 백로, 왜가리, 황새 등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마도 그 옛날에는 이러한 조류가 많이 서식하였을 것이다. 지금 낙천(洛川)은 광산의 물로 오염되어 그 많던 물고기가 멸종되었기 때문에 조류의 도래도 적어졌다.

## 6. 도산서원(陶山書院) 경관(景觀)의 기능(機能)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학문(學文)을 강학(講學)하는 사학(私學) 기관으로서 수학(修學)하는 자(者)의 심성(心性)을 기르고 고뇌를 풀 수 있는 경관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었다. 도산잡영(陶山雜詠)에서 퇴계 선생은 도산(陶山)의 경관(景觀)에서 얻어지는 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가 조식(調息)한 뒤 때로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상쾌하여 책을 덮고 지팡이를 짚고 뜰마루에 나가 연못을 구경하기도 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節友社)를 찾기도 하며 발을 돌면서 약초를 심기도 하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기도 한다. 또, 혹은 들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치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 마음을 잡고 이치를 궁할 때 간간이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먹기도 잊어 버린다. 생각하다가 통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혼자서 분비(憤悱)한다」 하였다. 이는 도산의 경관이 퇴계 선생의 구학(究學)하는데 있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운정사(隴雲精舍)는 학도들의 강실(講室)이었는데, 이 공자(工字)형의 집을 크게 셋으로 방을 나누어 재(齋), 요(寮), 헌(軒)으로 하고 재(齋)는 공부하는 방으로 논어(論語)에 나오는 학이시습(學而時習)의 구절에서 따와 시습재(時習齋)라 하였고, 요(寮)는 잠자는 방이므로 지숙요(止宿寮)라 하고 헌(軒)은 공부하다가 경관을 보고 심성을 수양하는 곳으로 낙천(洛川)의 물결속에 옛 성현(聖賢)의 행적을 느끼도록 관란헌(觀瀾軒)이라 하여 강실(講室) 하나의 기능을 이토록 조화(調和)있게 연관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산서당의 한간방에 완락재(玩樂齋)라 붙여 퇴계선생이 거처 하였는데 이 뜻도 「낙이완지 즉

이중오신이염부(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厭不)」란 주자(朱子)의 명당실기(名堂室記)에서 따온말로 「완상하여 즐기니 죽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라는 뜻인바 퇴계선생과 문도(文徒)들에게 도산(陶山)의 경관(景觀)의 기능이야 말로 학문하고 사색하는 최고(最高)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경관(景觀)의 조경적(造景的) 동선(動線) 기능과 풍류적(風流的) 회유(戲遊) 공간으로서 다시 보면 조성신작도산별곡(趙星臣作陶山別曲)에 잘 나타나 있다.

「농운정사(隴雲精舍) 도라드러 암서헌 드러가니 문전(門前)의 살 평상(平牀)은 장석(丈席)이 의의(依依)하고 궤중(櫃中)의 청려장은 수택(手澤)이 반반(班班)하다」 중략(中略)

「완락재(玩樂齋) 시습재(時習齋)와 관란헌(觀瀾軒) 지숙요(止宿寮)와 절우사(節友社) 정우당(淨友塘)을 차차로 둘러본후 몽천수 떠 마시고 유정문(幽貞門) 도라나서 곡구암(谷口岩) 더딘 길로 광영대(光影臺) 올라안자 원근(遠近) 산천(山川)을 일안(一眼)에 구며보니」 중략(中略)

「서대(西臺)를 다 본 후에 동대(東臺)에 올라 안져 스방을 살펴보니 이름 도타 천연대(天淵臺)야 운간의 더 소려기 너는 엇지 나랏스며 강중(江中)에 더고기야 너는 엇지 뛰노노」 중략(中略)

「창강의 달이 뜨니 야색이 더욱 도타 사공(沙工)은 노를 젓고 동자(童子)는 술을 부어 상류의 막인 벼를 하류의 띄어 늦코 초경의 먹은 술이 삼경(三更)의 대취(大醉)하니 주흥(酒興)은 도도(陶陶)하고 풍범(風帆)은 소소로다 그재야 꾀초안져 요금(瑤琴)을 비겨 안고 냉냉(冷冷)한녇 곡조를 주줄이 골와 하야 청량산(淸涼山) 육육가(六六歌)를 어부사(漁父詞)로 화답하니 이리 도흔 무한경(無限景)을 도화백구(桃花白鷗) 네알쇼냐. 춘풍(春風) 무우 언제런고 추월(秋月) 한수(寒水) 비취었다. 십팔절(十八絶) 칠언시(七言詩)와 이십육절(二十六絶) 오언시(五言詩)를 장장(章章)이 뽀바노야 자자(字字)이 외운 후의 강손을 하직(下直)하고 편주를 도로 더허 백구를 다시 불너 정녕이 언약하대 구추(九秋) 단풍절(丹楓節)의 또 한번 노자더니」

여기서 조성신(趙星臣)의 도산(陶山) 답사의 진로를 보면 곡구암(谷口岩) → 상덕사(尙德祠) → 도산서원(陶山書院) → 농운정사(隴雲精舍) → 절우사(節友社) → 정우당(淨友塘) → 몽천수(夢泉水) → 유정문(幽貞門) → 광영대(光影臺)(서대(西臺)) → 천연대(天淵臺)(동대(東臺)) → 낙천(洛川)의 동선이 형성된다. 지금도 유물전시관(遺物展示館)을 제외하면 이 관람선은 그대로이다.

그리고 위의 별곡(別曲) 속에서 낙천(洛川)은 회유공간으로 뱃노리를 하고 밤새도록 절경을 완상하며 가야금을 타고 퇴계 선생이 도산경관(陶山景觀)을 작시(作詩)한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를 외우면서 도취되는 실로 격조높은 풍류의 유희적 경관이기도 하였다.

## 7. 도산서원(陶山書院) 풍치(風致)의 미관(美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풍치(風致)는 영지산의 늙은 송림(松林)이 낙천(洛川)의 맑은 물에 잠겨 기암의 구비마다 유현(幽玄)한 격조(格調)를 풍긴다. 그속 오목한 계곡에 나죽히 가라앉은 서원(書院)의 작은 집들은 자연(自然)의 경관(景觀)을 다칠세라 산세(山勢)를 누르거나 계곡을 더럽히지 않고 자연(自然) 생긴대로 잘 가려서 배열된 것이다.

서원(書院) 어느 트랙에 다듬어 세운 돌이 없고 소박한 흙담 넘어 죽림이 있어 지고(至高)한 선비의 체취를 느끼며 곡구암(谷口岩) 산문(山門)에 세월이 두고간 설화(說話)같이 푸른 이끼가 긴장마 지나간 맑은 날에 곱게 일면, 선현(先賢)의 유적(遺蹟)을 찾아드는 뜻있는 길손에게 숙연한 감회를 준다.

봄에는 옥매화 벽도와 산수유가 어울려 만산계곡에 산꽃이 피고 한 여름 금모래 강변에 물고기

뛰며, 흰 갈매기 술 바람 소리에 취하고, 아침에는 낙천(洛川) 구비도는 강변에 하이얀 안개며 저녁 구름 산에 걸리어 곱게 물드는 관경은 울어사는 산세와 더불어 실로 선경(仙景)을 느끼게 한다.

그러기에 퇴계선생은 이 도산의 들 하나 나무 하나에 이르기까지 칠언시(七言詩) 오언시(五言詩)로 마음을 담았으며 이곳을 찾아드는 후인 또한 그러했다.

「조성신(趙星臣)의 도산별곡(陶山別曲)에

광영대(光影臺) 올라 안자

원근(遠近) 산천(山川)을 일안(一眼)의 구버 보니

동취병 서취병은 봉만(峯巒)도 괴이 하고

탁영담 반뜰석은 수석(水石)도 명려(明麗)하다.

금사(金沙) 옥력(玉礫)은 면면(面面)이 버렷스니

용문(龍門) 팔절(八節)은 모든 못 하엿시나

무이구곡(武夷九曲) 인물 예서야 더할손가」

당시 주자(朱子)나 공자(孔子)의 행적을 따르던 시대에 도산(陶山)은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 보다 더 아름다운 조선(朝鮮) 선비들의 이상향(理想鄉)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도산도(陶山圖)가 시대(時代)마다 당대(當代)의 절필(絶筆)에 의하여 그려졌으니 강세황(姜世晁)(1712~1791)의 도산도(陶山圖)가 또한 그러하다. 성호선생(星湖先生)도 생전(生前)에 원(願)이 도산(陶山)의 절경(絶景)을 답사하는 것이었고 이 뜻을 좇아 병든 성호선생(星湖先生)을 위하여 도산도를 그린 것이 지금 보물(寶物)로 지정(指定)되어 있는 강세황(姜世晁)의 도산도(陶山圖)이다.

나무를 심고 화초(花草)를 가꾸고 연못을 파고 단(壇)을 지웠서도 하나도 자연(自然)에 거역되지 않았고 당대의 거유(巨儒)로서 선조(宣祖)임금이 퇴계선생에게 경륜을 묻고 학문(學文)을 배웠어도 항시 겸손하고 소박하여 자연(自然)을 우리러 숭경(崇敬)하고 흠모하여 그의 도산(陶山) 십이곡(十二曲) 속에 자연(自然)에 귀이하는 시구(詩句)가 남아 있다.

「이런들 엇다 하며 더런들 엇다 흐료 초야(草野) 우생(愚生)이 이러타 엇다 흐료, 흐몰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터 므슴 흐료」

여기서 퇴계 선생은 자연의 경치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 병이 된 경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든디 도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도해 이듬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대 못흐애」

이는 도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옛 성현(聖賢)의 행적을 그리며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四時) 가흥(佳興) 사름과 흥가지라, 흐몰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사 어니 그지 이슬고」

「천운대 도라 드러 완락재 소만(瀟瀟) 흐디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악사(樂事) 무궁(無窮) 흐애라. 이 됴에 왕래(往來) 풍류(風流)를 닛어 므슴홀고」

이상의 구절은 도산(陶山)의 절경을 노래하고 자연(自然)에 묻히어 학문구학의 즐거움과 생활(生活)을 노래한 것이다.

## 8. 결 어(結語)

우리나라의 조경(造景)은 산세를 따라 산수(山水)의 아름다운 한 대목을 골라 터잡아 자연(自然)의 그윽함을 해치지 않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하여 경관을 조성하였다. 여기에 사계(四季)의 변

화를 드러나게 하고 심미안(審美眼)의 심성(心性)으로 승격시켜 유희(遊戱)하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선생(先生)의 학문적 사상과 결합되는 자연(自然)공간으로서 조선조(朝鮮朝) 사학(私學)기관의 대표적인 곳이며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 조경의 일례를 통하여 모든 곳에 작용하고 베풀어졌던 선비적 유현한 풍치를 더듬어 알 수 있다.

다행히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자연(自然)경관과 유적(遺蹟)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사(調查)하기에 용이하여 고찰에 도움이 되었다. 다소 근년의 보수과정에서 옛 풍치가 변하여 졌고, 시대관의 차이에서 오는 변형이 있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명승의 조경공간이 안동댐 공사로 인하여 이제 수몰직전에 있는 사실이다. 최대의 보존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힘써야겠다.

우리가 오늘 문화재 보수정화의 사업을 많이 시행하면서 사전의 유적에 대한 이러한 조사 사업이 선결되고 발굴조사된 연후에 선현의 정신을 받들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인적 물적 자원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바람을 타고 일어나고 있는 국토 보존의 조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통의 조경을 먼저 체득하고 선진문화의 조경방식을 터득하여 오늘의 새로운 한국 조경으로서 모든 기능적 미관적 과학적 방식으로 설계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지역의 환경미화에 있어서는 전통조경분야의 연구가 시급하다. 진실로 문화재(文化財)의 보수나 환경미화공사에 있어서 건조물(建造物)이나 석조(石造)조각 등의 가치(價値)를 보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의 보존이요 복구이다. 서울의 오대궁(五大宮)은 물론(勿論)이요 명찰(名刹)과 누각 등 많은 문화재 환경지역이 우리나라 조경(造景)의 전통양식을 찾을 길 없이 변형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제 우리는 각성하여 이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미미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 參 考 文 獻

1. 삼국사기(三國史記)
2. 삼국유사(三國遺事)
3.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4. 도산서원 보수정화지(陶山書院 補修 淨化誌)
5. 퇴계집(退溪集)
6. 부여군지(扶餘郡誌)
7. 한문학연구(漢文學研究)(이가원저)(李家源著)
8. 영조법시(營造法施)
9. 조선의 풍수(朝鮮의 風水)
10. 도산도 강세황작(陶山圖 姜世晃作)
11. 서울시사(市史)(고적편)(古蹟編)
12. 동사강목(東史綱目)
13. 고문진보(古文眞寶)
14. 택리지(擇理志)